

부모평정 진로지지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

신 효 정	김 영 빈	이 상 희	이 상 민 [†]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고려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CPSI: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Inventory)를 부모들이 평정할 때에도 동일한 구조를 나타내는 지 확인하고자,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의 결과,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 척도가 20문항 5요인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초기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경험적 지지'의 하위요인 문항 중 1문항은 문항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문항 12번과 문항 17번, 대화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문항 1번과 문항 6번은 비슷한 문항으로 서로 중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의 요인구조 모형은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 척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신뢰도 점수 역시 높게 산출되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나아가 부모들이 지각한 진로지지 수준은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지지 수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의 진로지지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 결과를 함께 살펴보며 사용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한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결과의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상담, 부모진로지지, 구인타당도

[†] 교신저자 :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Tel : 02-3290-2306, E-mail : leesang@korea.ac.kr

개인이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다 른 구성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한다. 즉 사회적 지지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한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지원과 관심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스트레스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유선, 1996), 실제로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주된 호소문제는 학업, 진로, 취업영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많은 부적응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완일, 1994). 현재 진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꼽고 있는 영역이며, 전문가의 도움이나 상담을 원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진로 발달이나 진로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김수리, 이재창, 2007; 이정규, 2006; 이광자, 김순옥, 2005).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Betz, 1989). 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관계망 지지는 진로결정 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정보지지와 존중지지는 진로결정의 자유로운 탐색을 도우며, 진로발달의 도구적 능력에 확신을 갖게 한다고 보고되었다(Schultheiss, Kress, Manzi, & Glasscock, 2001). Blustein(1997)은 인생 전반의 일과 관련된 다양한 과업 수행에서 개인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하였는데,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청소년은 깊이 있는 진로탐색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진로선택을 보다 잘

준비한다고 보고하였다. 남부 텍사스의 멕시코계 졸업반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Flores 등(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개인의 진로 포부와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예언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Flores & O'Brien, 2002). McWhirter 등(1998)도 학생이 선생님과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진로계획과 직업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 국내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권용미, 2003; 오은경, 2003; 한수현, 2003; 김수리, 이재창, 2007). 노미순(1999)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 직업학교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여성구(1996)의 직업과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과 급우, 교사 등 가까운 주변인들의 관심과 격려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진로 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 또래 그리고 교사를 생각할 수 있으나 청소년에게 또래와 교사의 중요성이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은 부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urman & Buhrmester, 1992).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학생은 높은 학업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Dubow & Ullman, 1989),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학생은 스트레스와 우울에 훨씬 취약하며(Cauce, Hannan, & Sargeant, 1992),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Baker, 1985). 김은경(2000)은 아버지와의 지지적 관계는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 지적발달을 증진시키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경험한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관계를 연구한 이광자와 김순옥(2005)은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진로결정에 자신감을 더 가지게 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진로발달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O'Brien(1990) 또한 부모는 장기적인 진로나 가치관 형성과 같은 중요한 선택에서 영향력 있는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교육적 발달과 진로발달 영역에서 자녀를 돕고 싶어 하며, 청소년들 또한 진로발달 영역에서 상당한 부분 부모에게 도움을 얻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Shartrand, Kreider, & Erickson-Warfield, 1994).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해 측정되고 있으며, 초기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인 지지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애정, 이해, 수용, 자존감 고양)와 도구적 지지(정보, 충고, 책임 있는 조언, 경제적 도움)로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지 원천들이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Cohen과 Hoberman(1983)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자존감 지지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사회적 지지의 유형들을 종합해 보면,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시간, 재원을 제공

해주는 물질적 지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주는 정보적 지지, 단체나 또래집단 등에 속해서 다른 이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 표출을 도와주고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소속, 정서적 지지,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자존감 지지 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직접 부모 진로지지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부모의 진로지지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없는 상태이며, 해외서만 몇 연구가 실시된 상황이다. Turner 외(2003)가 제작한 진로관련 부모지지 척도(Career-Related Parents Support Scale)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의 4가지 기대 원천에 따라 부모가 직업적·교육적 진로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지각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도구적 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를 부모 진로지지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그 밖에 Young 외(1994)는 부모가 진로관련 행동과 목표 지향적 행동을 모델링해주고, 진로관련 경험을 활발히 제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업적 목표에 도달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고, DeRidder(1990)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이야기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격려 및 진로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 진로지지에서 모델링과 대화 및 정보제공의 지지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이처럼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부모 진로지지의 요인에는 약간씩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단지 이 척도를 번역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일관되게 설명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진로 연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지지 척도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지지 척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상희(2009)는 진로에 대해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진로 지지 척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 가장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인 부모의 진로 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부모 진로지지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상희(2009)의 부모 진로지지척도 역시 다차원으로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 지지를 측정하고 있으며,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진로지지의 하위 요인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로 대화적 지지와 경험적 지지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 척도에는 없는 하위요인들이다. 이것은 부모가 학생에게 역할모델이나 자신의 직업현장 등의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진로 목표 발달과 관련한 부모의 중요한 역할을 포함하는 요인으로 이상희(2009)가 개발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가 기존의 다른 사회적지지 척도와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연구된 대부분의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들은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거나, 외국의 진로관련 부모지지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를 측정하기에

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상희(2009)는 사회적지지 척도와 구별되게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 하였다. 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척도는 진로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이 부모이지만,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지지를 평가하도록 만들어진 척도이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진로지지를 평가했을 때와 다를 수 있다. 즉, 이상희(2009)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진로지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구성요인이 5개의 요인인 것은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이 구성요인이 진로지지를 제공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모지지를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는 성격상 제공하는 대상과 제공받는 대상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양쪽의 입장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요인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지지를 제공받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지지의 요인도 중요하나, 실제로 진로지지를 제공하는 부모가 지각하는 지지의 요인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로지지가 제공될 때,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이 진로지지의 요인을 같은 것으로 지각할 때, 제공된 진로지지의 영향력과 효과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urner & Lapan, 2002; Turner et al., 2003; 이정규, 2006). 특히 부모지지는 청소년들의 역기능적인 진로 사고를 감소시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수

리,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모가 제공하였거나, 부모가 인식한 지지의 정도가 아닌 자녀가 지각한 부모지지를 연구한 결과이다. 또한 이정규(2006)는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는 학생이 지각한 진로지지와 차이가 있을 것임을 지적하면서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와 관련된 진로지지를 측정하는 데 사회지지 척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를 다루었을 뿐,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가 평정할 수 있는 진로지지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

당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희(2009)의 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척도를 부모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실시하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부모가 평정한 진로지지척도의 구성요인과 문항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 진로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국 서울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지역의 12개의 고등학교의 고 3 자녀를 둔 부모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총 124명의 부모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이

표 1. 연구대상

영역	대상	참여자(%)	영역	대상	참여자(%)
성별	남자	22(22.9)	직업 (아버지)	개인사업	41(40.2)
	여자	74(77.1)		교수 또는 교사	7(6.9)
학년	고2	5(4.9)		일반공무원	11(10.8)
	고3	97(95.1)		회사원	30(29.4)
학교	인문계	98(96.1)	전문직(의사 등)	6(5.9)	
	특수목적고	4(3.9)	개인사업	7(6.9)	
성적	상위권	38(37.3)	교수 또는 교사	4(3.9)	
	중상위권	32(31.4)	일반공무원	2(2.0)	
	중위권	22(21.6)	회사원	11(10.8)	
	중하위권	6(5.9)	전문직(의사 등)	4(3.9)	
	하위권	2(2.0)	주부	69(67.6)	
거주지역	서울·수도권	69(67.6)	기타	3(2.9)	
	지방	33(32.4)			

들 중 무응답이 3개 이상 포함된 자료와 무성 의하거나 동일한 척도에만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총 102명의 부모자료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성별 분포는 남자 22명(22.9%), 여자 74명(77.1%) 이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이상희(2009)가 개발한 학생용 부모 진로지지척도를 토대로 하여, 부모에게 맞도록 문장을 수정한 부모평정 부모 진로지지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구성 요인(정보적지지 4문항, 대화적지지 4문항, 정서적지지 4문항, 경제적지지 4문항, 경험적지지 4문항)으로 구성된 총 20개의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등으로 반응할 수 있는 Likert식의 5점 척도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평정 부모 진로지지척도는 부모들이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척도의 몇 가지 문항에 미세한 수정을 가하여 보완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이상희(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거의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용 진로지지척도 2번 문항인 ‘부모님은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알려주신다.’는 ‘나는 자녀에게 이상적인 직업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의 부모 평정 진로지지척도로 수정 보완되었다. 수정된 문항들이 하위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교차검토 하였으며, 부모 진로지지척도의 최종 문항내용 및 하위요인은 표 4와 같다. 이상희(2009)의 연구에서 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척도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

α 값은 정보적지지는 .82, 대화적지지는 .83, 정서적지지는 .82, 경제적지지는 .79, 경험적지지는 .78이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적합도는 $\chi^2=385.1$, NFI=0.90, TLI=0.93, CFI=0.94, GFI=0.92, RMSEA=0.06 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우수’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가 지각한 진로 지지척도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 정보적지지는 .79, 대화적지지는 .77, 정서적지지는 .80, 경제적지지는 .83, 경험적지지는 .81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진로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준비 단계,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문항검토 단계, 본 검사 실시 단계,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요인구조 및 하위척도 문항확정 단계를 거쳤다. 이상희(2009)가 개발한 학생용 부모 진로지지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연구자들이 검토한 척도로 본 검사를 진행하였다. 본 검사를 위해 고용된 연구 요원들은 전국 12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집단 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연구동의서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학부모들에게는 집단교육 시간 내에 문항에 답하게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각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집단교육에서 최대한 동일한 방법으로 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상희(2009)가 제안한 5요인 구조를 1차 모형(first order model)과 2차 모형(second order model)으로 나누어서 비교분석한 후, 보완지수(modification index)를 점검하여 적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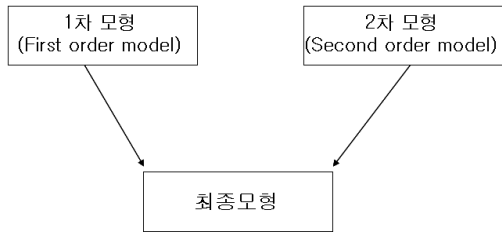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절차

최종모형을 확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는 데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2.0과 AMOS 5.0이 사용되었다. 부모평정 부모진로지지척도 20 문항에 대한 전체 수치는 3.32에서 4.45점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은 3.93점(SD=.67)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하위 척도 평균수치의 합은 3.56에서 4.16점 범위에 있었으며, 전체 수치의 분포도는 skewness과 kurtosis가 1.0보다 낮아 비교적 동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0문항의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0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5개 하위척도 각각의 신뢰도는 .77에서 .83사이의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대상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진로지지척도의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상희(2009)가 실시한 5요인구조 1차 모형(first-order model)을 토대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분석 및 점검하였다. 이상희(2009)가 제안한 5요인구조 1차 모형(first-order model)과 함께, 각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이 높으며 모든 하위척도가 부모지지라는 상위구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가정한 5요인구조 2차 모형(second-order model)의 적합도 역시

점검하였다. Hu & Bentler(1998;1999)에 따르면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대값을 검증하며, 다양한 적합도 지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제시된 측정도구들이 얼마나 실제 데이터에 적합한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인 AMOS 5.0을 사용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있어 완전정보최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했는데, 완전정보최우도법(FIML)은 목록별(listwise)이나 짝별(pairwise)로 분석하는 방법에 비해 결측 자료(missing data)를 다루기 쉽고, 이것을 통한 추정치는 일치성이 높고 효율적이며 이론에 근거하고, 가장 작은 치우침까지도 나타낼 수 있게 한다(Arbuckle, 1996).

McDonald와 Ho(2002)에 따르면, 데이터가 앞서 언급한 5요인 모형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카이제곱(chi-square)/자유도(degrees of freedom) 비율, 적합도 검정 지수(the goodness-of-fit index; GFI), 비교 검정 지수(the comparative fit index; CFI), 근사값 평균제곱근오차(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등의 네 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에도 나와 있듯이 카이제곱 값은 분석 결과 측정되기는 했지만, 그 모형이나 표본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를 측정하는 데 적용하지 않았다. 카이제곱/자유도 비율에 있어서는 그 값이 3.0 이하가 될 때 적합하며(Kline, 1994), 적합도 검정 지수 및 비교 검정 지수 통계치는 0에서 1 사이가 되며, 그 값이 .90 이상이 될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Byrne, 2001). 또한 근사값 평균제곱근오차는 그 값이 .05이거나 그 미만일 때 합격선이라

할 수 있으며, .08일 때는 적당한 정도이고, .10이거나 그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합지 않다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2). 위와 같은 기준치들은 현대의 연구들에 있어서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다.

기존의 20문항 5요인구조 1차 모형(first-order model)과 2차 모형(second-order model)을 비교하여 보면, 모든 문항 모수들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며, 2차 모형에 비해 1차 모형이 표본 자료를 보다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차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자유도 비율은 1.81를 기록했으며, 적합도 검정 지수(NNFI) 및 비교 검정 지수(CFI)는 각각 .86와 .85이었고, 근사값 평균제곱근오차(RMSEA)는 .09였다. 이에 비해 2차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자유도 비율은 1.84를 기록했으며, 적합도 검정 지수(NNFI) 및 비교 검정 지수(CFI)는 각각 .85와 .84이었고, 근사값 평균제곱근오차(RMSEA)는 .09였다. 또한 1차 모형과 2차 모형의 χ^2 의 차이가 13.17로 유의미하므로 1차 모형이 2차 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5요인을 유지하면서 표본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모형을 재평가 및 재구조화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大)수정 지수(Large Modification Index) 또는 대(大)표준화 잔차(Large Standardized Residuals)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식별되었다. 대(大)수정 지수 및 대(大)표준화 잔차는 문항 내용에 있어서 높은 정도의 중복도와 다중적인 부하량의 복잡한 형태에서 비롯되는 부적합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Byrne, 2001). 이러한 문항들은 모수 추정치와 수정 지수, 그리고 표준화 잔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 번에 하나씩 투

입되었다. 적합한 모형이 형성될 때까지 문항들 간의 오차항이 연결되었으며, 그 결과 앞서 언급한 기준치에 맞는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 정해지게 되었다.

기존의 20문항 5요인 구조 중 ‘경험적 지지’ 하위요인의 12번 문항과 17번 문항의 오차항간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가 30.39로 높게 나왔으며, 또한 ‘대화적 지지’ 하위요인의 1번 문항과 6번 문항의 오차항간의 수정지수 역시 17.48로 높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문항을 살펴보면, 경험적 지지의 12번 문항의 경우, ‘나의 자녀는 내(부모)가 일하는 곳의 직장동료들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면, 이와 관련이 있다고 나온 17문항의 경우, ‘나는 자녀에게 내(부모)가 일하는 곳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문항들은 같은 요인에 속해있지만 너무 비슷한 문항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번과 6번 문항 역시 거의 비슷한 문항임을 알 수 있다. 만약 단축형 척도가 개발된다면, 제거해야 할 반복적인 문항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차항간의 경로를 연결한 후, 다시 적합도를 점검한 결과, 카이제곱/자유도 비율은 1.39를 기록했으며, 적합도 검정 지수(NNFI) 및 비교 검정 지수(CFI)는 모두 .93이었고, 근사값 평균제곱근오차(RMSEA)는 .06이었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적합도 검정 지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정된 부모평정 부모진로지지척도 20문항 5요인 모형은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정 전 1차 모형과 수정 후 1차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부모평정 부모진로지지척도의 최종 모형의 요인구조는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 20문항 중 19문항은 각 요인에 해당하는 부하량(factor loading)이 .01의 유의수준($p < .01$)에서 통계적으

표 2. 부모 진로지지 척도 모형의 적합도

Model	χ^2	df	$\Delta\chi^2$	NNFI	CFI	RMSEA
2차 모형	303.49	165		.85	.84	.09
1차 모형	290.32	160		.86	.85	.09
1차 모형과 2차 모형의 차이		5	13.17*			
수정된 1차 모형	218.54	157		.93	.93	.06
1차 모형과 수정된 1차 모형의 차이		3	71.78**			

Note.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IC =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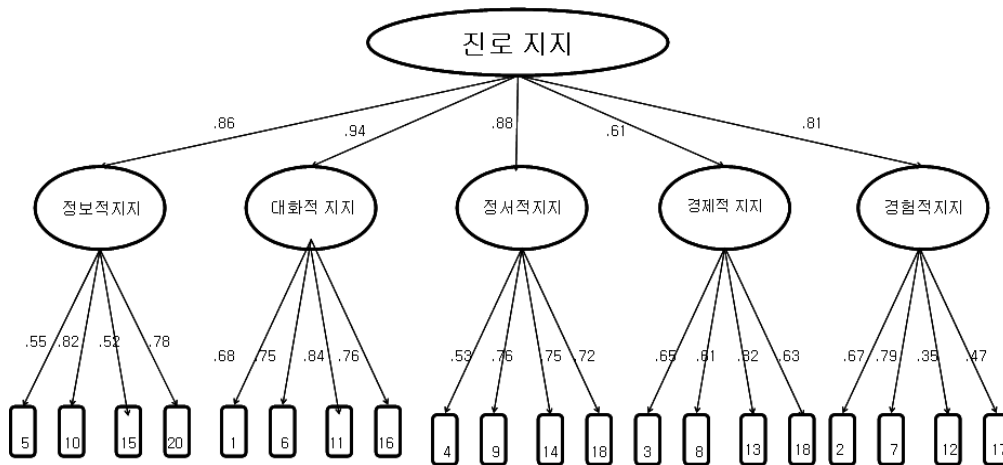


그림 2. 부모 진로지지의 2차 모형

Note. 요인들의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임.

로 유의하였으나, 표 2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요인인 ‘경험적 지지’ 하위요인의 3번째 문항은 .05의 유의수준($\text{loading}=.2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문항을 살펴보면, ‘나의 자녀는 내(부모)가 일하는 곳에 직장동료들을 만난 적 있다’라는 문항으로 이는 다른 ‘경험적 지지’ 하위척도의 문항(나

는 자녀에게 나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모델링과 낮은 상관이 있는 문항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이상희(2009)가 제시한 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척도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모평정 부모 진로지지척도에 대

표 3. 부모진로지지 하위요인 간 상관 및 내적 합치도

요인		1	2	3	4	5
1. 정보적 지지		-	.66**	.38**	.26**	.53**
2. 대화적 지지		.61**	-	.51**	.27**	.51**
3. 정서적 지지		.55**	.66**	-	.24**	.33**
4. 경제적 지지		.38**	.47**	.43**	-	.20**
5. 경험적 지지		.55**	.54**	.39**	.42**	-
이상희 (2009)	M	2.73	3.53	3.58	3.98	3.23
	SD	.88	.85	.83	.83	.95
	a	.82	.83	.82	.79	.89
본 연구	M	3.56	4.15	4.08	4.16	3.69
	SD	.69	.65	.62	.64	.75
	a	.81	.86	.78	.68	.74
효과크기	<i>Cohen's d</i>	1.05	.82	.68	.24	.54
	<i>Effect size r</i>	.46	.38	.32	.12	.26

Note. 상관관계표의 대각선 위의 수치는 기존의 이상희(2009)의 연구에서 도출된 값이며, 대각선 아래의 수치는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값임.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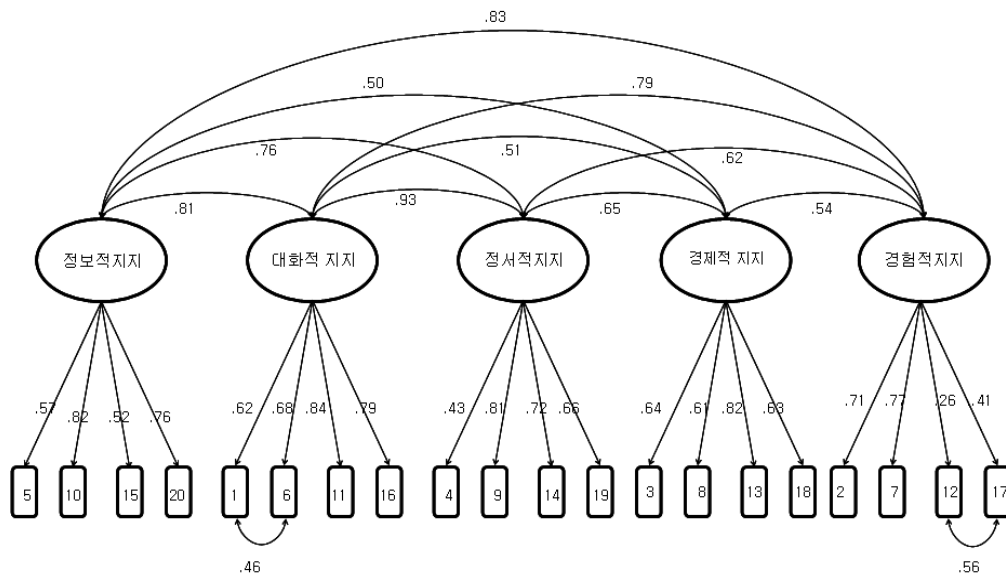


그림 3. 부모 진로지지의 수정된 5요인 모델

Note. 요인들의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임.

한 기술 통계 수치들은 표 3에 잘 나타나 있다. 부모평정 부모 진로지지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의 α 계수가 5개 하위척도 모두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평정 부모진로 지지척도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정

표 4. 부모 진로지지 척도의 최종 문항내용 및 요인별 부하량

번호	문항	요인			
		정보	대화	정서	경제 경험
5	나는 자녀에게 장래 희망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57			
10	나는 자녀에게 이상적인 직업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82			
15	나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장, 단점과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52			
20	나는 자녀가 시대흐름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전반적인 상황과 정보를 제공한다.	.76			
1	나는 자녀가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한다.	.62			
6	나는 자녀의 미래 진로에 대해 함께 대화를 한다.	.68			
11	나는 자녀의 진로문제를 이해해 주고 함께 대화를 한다.	.84			
16	나는 자녀와 장래 진로의 두려움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한다.	.79			
4	나는 자녀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43			
9	나는 진로에 관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81			
14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와 자녀의 의견이 다를 때라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72			
19	나는 자녀가 취업이나 진로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66			
3	나는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미래에도 지원해 줄 것이다.	.64			
8	나는 자녀가 원하면 어학연수 및 유학을 보내줄 것이다.	.61			
13	나는 자녀의 취업 및 진로 준비를 위한 교재비 및 학원비를 지원해 줄 것이다.	.82			
18	자녀의 진로에 필요하다면, 나는 아무리 큰돈이라도 마련해 줄 것이다.	.63			
2	나는 자녀에게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71			
7	나는 자녀에게 나(부모)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77			
12	나의 자녀는 내(부모)가 일하는 곳의 직장동료들을 만난 적 있다	.26			
17	나는 자녀에게 내(부모)가 일하는 곳을 보여준 적이 있다.	.41			

보적지지는 .79, 대화적지지는 .77, 정서적지지는 .80, 경제적지지는 .83, 경험적지지는 .81이었다. 또한 5요인간의 상관관계도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관의 수치를 이상희(2009)의 연구와 비교하면,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에서 이상희(2009)는 .66-.20의 상관을 보였으나, 부모가 지각한 자녀에 대한 진로지지 상관에서는 .66-.38까지의 상관을 보였다. 각 하위요인의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이상희(2009)는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에 대한 하위 요인별 평균값은 정보적 지지는 2.73, 대화적 지지는 3.53, 정서적 지지는 3.58, 경제적 지지는 3.98, 그리고 경험적 지지는 3.23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부모가 지각한 자녀에 대한 진로지지에 대한 하위 요인별 평균값은 정보적 지지는 3.56, 대화적 지지는 4.15, 정서적 지지는 4.08, 경제적 지지는 4.16, 그리고 경험적 지지는 3.69로 대체로 지지에 대한 지각이 학생이 보고한 지지척도의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하위척도에 대하여 학생평정과 부모평정 각 요인의 효과크기를 측정할 결과 Cohen's d가 정보적 지지에서 1.05, 대화적 지지 .82, 정서적 지지 .68, 경제적 지지 .24, 경험적 지지 .54로 나타났으며, Cohen's d 수치를 상관(r)의 값으로 전환하여 추정된 효과의 크기 역시 정보적 지지에서 .46, 대화적 지지 .38, 정서적 지지 .32, 경제적 지지 .12, 경험적 지지 .26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

희(2009)가 개발한 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척도(CPSI: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Inventory)가 부모평정 진로지지척도에서도 동일한 5요인 구조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검사도구는 이상희(2009)의 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척도를 부모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전국 12개 고등학교의 학부모 10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진로 상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상희(2009)가 제안한 5요인 구조를 1차 모형으로 하고, 각 하위척도의 상위구인을 가정한 2차 모형을 가정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상희(200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 평정 진로지지척도에서도 5요인 구조의 1차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평정자와 관계없이 부모 진로지지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의 5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최근 진로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밝히려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척도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평정과 부모평정에서 일관된 부모 진로지지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진로상담 연구에서 명확한 지지 내용의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모 진로지지척도에 대한 학생과 부모 각각이 지각한 요인 간 점수 차이를 검토한 결과, 진로지지에 대한 지각은 학생이 보고한 결과에 비하여 부모가 보고한 결과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지지를 제공하는 부모는 많은 지지를 주고 있다고 지각하는 반면, 지지를 받는 입장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균값에서의 차이는 진로지지 연구에 있어서 학생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야 객관적인 진로지지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의 하위요인별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부모들은 경제적 지지와 대화적 지지를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정서적 지지, 경험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희(2009)의 연구결과에서, 학생들 역시 경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 대화적 지지, 경험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순으로 나타나, 부모평정과 학생평정에서의 하위요인의 지지 정도에 있어서 유사한 순위를 보였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모들의 진로지지는 경제적 지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 및 교육비 부담과도 관계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Schultheiss 등(200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정보적 지지가 가장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현림, 송재영(2004)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받았다고 지각하는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물질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높고,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 지지가 낮게 나타나, 정보적 지지의 측면에서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진로탐색행동, 진로선택, 진로계획, 진로성숙 등 다양한 측면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Avison & McAlpine, 1992; Blustein, 1997; Flores & O'Brien, 2002; 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 권용미, 2003; 오은경, 2003), 본 연구에서 검토된 부모평정 진로지지척도를 사

용함으로써 청소년 진로발달을 위한 부모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Schultheiss, Kress, Manzi, & Glasscock, 2001; 이상희, 2009)에서 밝혀진 바와 마찬가지로 진로지지의 여러 하위요인 중 특히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 부모와 학생들은 일관적으로 경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대화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진로지지 정도를 평정함으로써 개선을 위한 자기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진로상담의 과정에 본 척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확인한 부모평정 진로지지척도의 모형검증 과정에서 오차항 간의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1차모형을 수정함으로써 적합도 지수를 더 높일 수 있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대화적 지지 요인의 1번('나는 자녀가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한다')과 6번 문항('나는 자녀의 미래 진로에 대해 함께 대화를 한다.'), 경험적 지지 요인의 12번('나의 자녀는 내(부모)가 일하는 곳의 직장동료들을 만난 적이 있다')과 17번 문항('나는 자녀에게 내(부모)가 일하는 곳을 보여준 적이 있다')이었다. 만약 단축형 척도가 개발된다면, 위 문항들을 한 개의 문항을 제거하거나 또는 문항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이 지각한 것과 부모가 지각한 것에서 일관된 부모 진로지지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이는 진로

상담에서 학생과 부모를 모두 상담할 때,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와 부모가 지각한 진로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만일 학생과 부모 각각이 지각한 진로지지가 다를 경우, 학생의 진로 발달 및 성숙을 높일 수 있는 부모 진로지지 태도 및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부모상담의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부모와 학생들은 진로지지의 여러 하위요인 중 특히 일관적으로 경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인 것을 고려하여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을 할 수 있다. 즉, 진로상담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부모의 진로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주요 변인으로 하여 진로준비를 촉진시키고, 진로성숙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진로지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효과적인 부모지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상담자는 학생이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과정에서 부모와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의 12개 고등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표집은 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고 3의 학생의 경우 부모의 지지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고 3학생의 부모를

주요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결과를 전체 청소년의 부모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실업계, 특목고 등에 재학 중인 다양한 학생들의 부모를 모두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자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대표성 있는 표집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예: 계층표집)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의 요인을 선정하면서 지나치게 통계적 수치에만 의존하다 보니 진로상담의 이론적인 측면을 검사도구에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통계적 수치만을 보면 이 척도의 하위척도가 5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2000) 등의 진로상담이론에 입각해서 그 결과를 다시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된 5요인 모형과 기존 이론적 모형에 입각한 모형이 상담실제에 어떻게 다른 함의를 가져다주는지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험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문항 12번과 문항 17번, 대화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문항 1번과 문항 6번은 비슷한 문항으로 서로 중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첩된 문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재검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정된 척도는 부모용 진로지지 척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보고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지지가 주어졌는지 객관적인 정보를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면접 등의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부모 진로지지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야 할 것이다.

부모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며, 부모의 진로지지는 청소년의 진로 발달 및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의 진로지지 요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진로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지지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부모의 진로지지를 5개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학생입장과 부모입장에서 동일하게 확인하였으므로 연구결과는 향후 청소년 진로발달증진 및 부모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용미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김완일 (1994).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12, 125-210.

김은경 (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미순 (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여성구 (1996).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공주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은경 (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 유형, 진로 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광자 김순옥 (2005).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14.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 연구, 10(3), 1539-1553.

이유선 (1996). 사회적 지지와 자기지각이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이현림, 송재영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 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43-27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Avison, W. R., & McAlpine, D. D. (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77-96.

Bandura, A.(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ker, A. (1985). "What will tomorrow bring?" *A study of the aspirations of adolescent women.* Ottawa, ON: The Advisory Council on the Status of Women.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17,* 136-144.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 230-258.
-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60-274.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auce, A. M., Hannan, K., & Sargeant, M. (199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Interactive effec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787-798.
- DeRidder, Larry (1990). The Impact of Parents and Parenting on Career Development. TN: Comprehensive Career Development Project.
-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Flores, L. Y., &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4-27.
-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 424-45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McDonald, R. P., & Ho, M. H. R. (2002). Principles and practice in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Psychological Methods, 7,* 64-82.
- McWhirter, E. H., Hackett, G., & Bandalos, D. L. (1998). A casual model of the educational plans and career expect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66-181.
- Schultheiss, D. P., Kress, H. M., Manzi, A. J., & Glasscock, J. M. J.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inqui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 216-241.
- Shartrand, A., Kreider, H., & Erickson-Warfield, M. (1994). *Preparing teachers to involve parents: A national survey of teacher education programs.* Cambridge, MA: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
- Sherri L. Turner & Richard T. Lapan. (2002).

- Career self-efficacy and perceptions of parent support in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 44-55.
- Sherri L. Turner & Richard T. Lapan, (2003). Native American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2), 159-172.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2), 145-159.
- Turner, S. L., Annette, A., Lapan, R. T., Udipi, S., Ergun, Damla.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2), 83-94.
- Young R, A., Valach, L., Dillabough, J., Dover, D.,& Matthes, G. (1994). Career research from an action perspective: The self-confrontation procedur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2), 185-196.
- 원 고 접 수 일 : 2009. 10.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1. 22
게 재 결 정 일 : 2010. 02. 19

An Examination on Construct Validity of the Parent Version of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Inventory

Hyo Jung Shin

Korea University

Young-Bin Kim

Korea University

Sang-Hee Lee

Kwangwoon University

Sang Min Lee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parent version of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Inventory (CPSI).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initial hypothesis in which CPSI showed 5-factor structure with 20 item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item 12 and item 1 are highly associated with item 17 and item 6, respectively. Overall,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d that a first-order five-factor model exhibited not only a better fit but also more parsimonious than a second-order factor model. High reliability coefficients implied that the responses in the CPSI were consistent within each sub-factor. When career-related support for parents were compared with those for adolescents, results showed that parents exhibited higher scores in all sub-factors of CSPI than adolescent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under the context of Korean culture, economy, and society.

Key words : Career Counseling,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Construct Validity